

# 이재명 “총선 패하면 당 어려워지고 내 정치도 끝난다”

### 민주당 의총…“체포안 표결 후 갈등, 대표로서 책임감” “총선 승리 위해 어떤 일도 할수 있다” 지도부 신임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당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내 정치도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뒤 이어진 당의 내용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고 박수의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번 의총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당 소속 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이날 메시지는 비명(비이재명)계 중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는 만큼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가르는 중요한 선거인 총선에 결연한 각오로 임하는 만큼 일단은 현 지도부를 신임해 달라는 우회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총선 승리를 가장 절박하게 바라는 사람이 이 대표일 것”이라며 “그런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심정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의 언급은 당 일각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는 당장은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분을 수습하되, 적당한 시점에 이 대표가 물러나고 당은 조기 전당대회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시각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 요구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혀서 관심을 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한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말에 “이 대표가 ‘국가와 국민의 삶, 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별도의 해석은 붙이지 않겠다”고만 대답했다.

이 대표는 한편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경청했고,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해안을 들었다”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의 간담회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받는 등 최근 들어 의원들과의 소통에 주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도부 교체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이후 최고위가 단일 체제로 구성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단일한 색채가 문제고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적잖이 수용한 듯한 태도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데 대한 입장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그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저를 비롯한 지도부의 소통 부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등 폭력적 행태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당내 일부 지지자가 의원들을 향해 지나친 행위를 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은 당 대표 책임”이라며 “내부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만족스럽지 않은 당 운영에 많은 의원이 참여하고 인내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당직 쇄신론 급부상 ‘3말4초’ 유력

### 당 내홍 통합 카드…쇄신 폭·내용·호남의원 중용 등 관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이탈표 논란으로 촉발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당직 쇄신 카드를 고리로 점차 봉합되는 흐름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에서는 지난 15일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적 쇄신의 내용과 폭이다. 이 대표의 인적쇄신 카드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오히려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 내부의 ‘대표 사퇴론’은 점차 수그러지는 분위기다. 일단 이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도 대안이 명확하지 않아 당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폭적인 인적쇄신론은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인식이다.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의원들이 결집,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모은다면 이 대표가 인적쇄신과 혁신을 통해 당의 내홍을 수습하는 시나리오다.

이를 반영하듯, 16일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의 S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냥 뭉치는 것만 답은 아니다”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혁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이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한 권력자를 무조

건 내려와라 하는 방식에는 회의적”이라며 “당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새롭게 바꾸면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시기로는 ‘3말4초’(3월말이나 4월초)가 거론되고 있다. 4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적 쇄신의 폭은 좀 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은 물론 임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돼 민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인적 쇄신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당직에 배제됐던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탁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사무총장 교체 등은 과도한 요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무총장은 당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운영한다”면서 “사무총장이 (당대표와) 호흡이 잘 안 맞다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적 쇄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이 대표가 과연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인적쇄신이 이뤄진다면 과

감한 혁신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뉴민주당 플랜’, ‘뉴파티위원회’ 등과 같은 프로젝트 기구를 통해 ‘제2의 민주당 플랜’을 만들어 민생에 다가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용단폭격에 당의 분열상까지 나타나면 상황수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감한 인적쇄신 카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적쇄신 카드가 민주당의 미래에 별다른 반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친명 및 비명 강경파 진영에서 인적쇄신이 민주당의 본질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통을 통한 내부 결집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서 인적쇄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당내 여론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수박(배신자) 명단’ 등 당 소속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과 내홍’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 민주당 의원 및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명단 등이) 당의 화합을 깰 수 있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 민주 ‘이낙연 제명’ 청원에 “분열 안돼”

### 이재명 대표 메시지로 같음…“총선 승리에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징계를 요청한 강성 당원들의 청원에 당의 단결을 촉구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로 답변을 같을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답변에서 “이 대표의 말씀을 발췌했다”며 “본 청원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이 답변을 내놓은 청원은 총 두 개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제기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제명 요구와 지난 2월 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던 박 전 위원장 징계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원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자리에서 했던 발언과 이튿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 당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내부 단합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을 줄여 총선 승리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 자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겠나”라며 “일부 의원들 사무실 앞에 전광판 트럭으로 공격적 문자를 게시하는 행동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